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온정-원남) 건설공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

2021. 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반영 여부)

1. 주민의견 수렴 개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76호(2020.09.23.)로 공고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노선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가. 행정기관

◦주관 행정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지방환경청

나. 주민공고

(1) 신문공고

공고번호	공고일	신문공고		게시	비 고
		일간	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76호	2020.09.23	전국매일신문 신아일보	경북일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람장소	비 고
2020.09.23.～2020.10.26 (20일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울진군 온정면사무소 울진군 매화면사무소	

(3) 공람결과

주민의견서 제출자	공청회 요구인원	공청회 개최여부	비 고
-	없음	없음	

다. 주민설명회

(1) 설명회 공고

공고번호	공고일	신문공고		게시	비 고
		일간	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76호	2020.09.23	전국매일신문 신아일보	경북일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비 고
2020.10.14.(10시～15시)	온정면 소태1리, 소태2리, 소태3리	
2020.10.15.(10시～15시)	온정면 선구2리, 외선미1리, 외선미2리, 매화면 갈면리, 길곡리	

(3) 설명회 결과

구 분	온정면		매화면	공청회 요구
참석인원(명)	소태1리 : 29 소태2리 : 10 소태3리 : 9	선구2리 : 24 외선미1리 : 22 외선미2리 : 11	갈면리 : 16 길곡리 : 14	없음

(4) 설명회 개최 전경

온정면 소태1리	매화면 갈면리

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의견 제출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지방환경청

○ 공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76호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온정-원남)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온정-원남)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9.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온정-원남) 건설공사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 사업내용 : 연장 15.5㎞, 폭 10.0m(2차로 시설개량)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
- 설계기간 : 2019. 12. 20 ~ 2021. 12. 08 (24개월)
- 공사기간 : 설계 완료 후 7년(예상)

3.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0. 09. 23 ~ 2020. 10. 26 (2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울진군 온정면사무소, 울진군 매화면사무소
-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노선계획(안)

4.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울진군 온정면 : 소태1·2·3리, 선구2리, 외선미1·2리(2020.10.14.(수) 10:00~, 15(목) 10:00~)
- 울진군 매화면 : 길곡리, 갈면리 (2020. 10. 15(목), 13:00~)

※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확산방지를 위해 각 마을별로 분산 실시할 계획으로 각 마을별 동일 설명회 반복 개최

5.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울진군청,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공고

전국매일신문

전국매일신문 경제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7

SK하이닉스, 인공지능 연구개발 본격화 한다

세종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생산자물가 석달째↑…주가 상승 서비스물가 역대 최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생협과 학교급식용 친환경 수매 농산물 공동판매

전남혁신센터, 농수산식품기업 판로개척 돕는다

무안고 사망자 공고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은정-원남) 건설공사 전력지장물(통신선·노선개폐) 이설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미-중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클라우스 슈밥, 헨리 키신저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극찬한 최재각!

신아일보

AXA손해보험 깜깜이 매각에 '불안한 직원들'

모회사 프랑스 AXA그룹, 일정·방식 등 비공개
주관사 등 관계자 모두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
노조, 사모펀드로 팔릴까 걱정— 투명 매각 요구

AXA손보 매각을 둘러싸고 공가지 매각가 나오지만, 정작 AXA손보 내부자들은 매각 관련 정보에서 철저히 차단된 모습이다. 매각 주관사나 예비 입찰 참여사로 거론된 회사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 AXA손보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다. AXA손보 노조는 회사가 사모펀드로 넘어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할까 노심초사하며, 모회사인 프랑스 AXA그룹이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서는 AXA손해보험 매각 주관사 삼정KPMG가 지난 18일 AXA손보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삼정KPMG는 매각 일정과 방식에 대해 입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정KPMG 관계자는 "매각 일정과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매각 담당자인 AXA손보 관계자들도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넘어게 될 지 아예 입지 못하는 상태다.

AXA손보 관계자는 "AXA손보 모회사인 프랑스 AXA그룹의 M&A(인수·합병) 방침은 내부에서 관련 문의를 해와도 노조원들도 일관된다"며 "AXA손보에서 매각 내용을 확인하고 알려도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AXA손보 직원들도 언론을 통해 매각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AXA손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예비 입찰에 교보생명이 단독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 역시 담당자인 교보생명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AXA손보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시 용산구 AXA손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절차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사모펀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사모펀드는 동양을 넘어가나 인력을 최소화해 매물가치를 올려 연일이 되려는 방식이 경제 고용 인원이나 보험업에 좋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XA손보 노조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들이 매각 사례를 보면, MG손보와 동부손보가 사모펀드에 매각된 바 있다"며 "보험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모펀드로의 매각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을 진행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안정방안도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매각설이 떠오르자 AXA손보 내부 불안감이 증폭돼 노조에 찾아와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AXA손보 노조는 사모펀드에 매각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예비 입찰에 교보생명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당시 예비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았던 신한금융과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한 수준"이라며 "사모펀드의 참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예비 입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본입찰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며 "예전의 사모펀드 매각 가능성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결 기자 ezekang@shinailbo.co.kr

금융당국, 유튜브 '불법사금융 그만!' 홍보

아이돌 콘서트 '대리입금' 등 실사례 통해 경각심 제고

중학생 B씨는 아이돌 콘서트 표 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줬다고 3일 위해 수고비 30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대리입금'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로, B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 등을 담은 '불법사금융 무차비해결 및 추진실적'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연중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 사례를 알리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대통령 주재 민무서민정책회의를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날인 23일 금융위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서민 폭보가 어려운 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의 기승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에 종사 대응하는 기간으로 지난 4월29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했다. 범정부 주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꾸려하여고,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불법사금 지단 등을 진행 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총 842명이 검거됐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1~3월 평균 검거인원과 비교해 5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105명은 구속됐다.

또, 금감원과 과기부, 경기도 등은 불법사금융광고 7만6002건을 적발, 차단 조치했다.

김하나 기자 ceo0020@shinailbo.co.kr

라임펀드 사태 내달 제재심… 증권사 CEO '긴장'

금감원, 내달 제재심에 라임 연관 관련 준홍사·판매사 출석
경영진 징계시 향후 연임 '빨간불'— DLF사태 재연 우려 높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와 판매사 등두 다음달 징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고 있다. 만일 금감원이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각 대표들의 향후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여 증권업계가 연일 긴장을 놓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중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연관을 줄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제재 대상과 수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 대한 일정이나 제재 수위는 보안상 예기할 수 없다"며 "현재는 검사 사후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문제의 근원이 된 라임자산운용 및 이들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설계한 모드로라이, 라임자산운용부터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그간 드러난 부분만을 고려했을 때 등록 취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라임운용의 펀드를 넘겨받을 가교 운용사 또한 해당한 이달 중으로 등록 심사를 마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 '엘브이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판매 중단 펀드 및 청산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건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다.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기존 징계했던 아니라 경영진 제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리던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액(총 3조8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1조9000원, KB증권은 6천억 원 이치를 거둬 왔다.

만약 다음달 제재심에서 경영진 징계가 이뤄진다면 각 사 CEO의 연임 및 향후 거취 또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가장 눈앞에 둔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로,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경훈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지난 3월 라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병철 전 사장의 뒤를 이어받았고,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나재철 전 사장이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 각 임기는 2년으로, 내년 말 임기가 만료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가 터나 연관된 사안이다 보니 징계 수위를 섣불리 판단할 수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사는 제재를 받는 입장이니만큼, 금감원의 발표를 조금의 기다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대규모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때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의 경영 책임을 물어 연임 및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의 경우 펀드 부실을 이미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200@shinailbo.co.kr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은정-원남) 건설공사 전력통신설비(가로등전선 · 노선계획) 공동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은정-원남)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법, 예산조, 김만 면 시행령 예산조, 예산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력통신설비(가로등전선과 노선계획)인에 대한 공동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9.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략의 개요
○ 개 략 명 :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은정-원남) 건설공사
○ 위 치 : 전남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재지 ~ 전남북도 울진군 북면면 상면리
○ 사업내용 : 연장 15.5km, 폭 10.5m(2차로 사업개량)
○ 사업시행자 및 실시권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
○ 설계기간 : 2019. 12. 20 ~ 2021. 12. 08 (24개월)
○ 공사기간 : 설계 완료 후 기간예상
3. 공동 기간 및 공동장소
○ 공동기간 : 2020. 09. 23 ~ 2020. 10. 26 (33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동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울진군청 환경과분과, 울진군 온정면사무소, 울진군 북면면사무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동내용 : 전력통신설비(가로등전선), 노선계획안
4.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일	구 분	개최일	구 분	개최일
온정 사무소	2020. 10. 05	온정 초등학교	2020. 10. 05	북면 사무소	2020. 10. 05
온정 사무소	2020. 10. 05	온정 초등학교	2020. 10. 05	북면 사무소	2020. 10. 05
온정 사무소	2020. 10. 05	온정 초등학교	2020. 10. 05		

※ 상반되는 의견이 나타날 확산지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에 관한 심사를 개최하고 각 이해를 통일 상반되 반복 개최
5.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동개시 후 ~ 공동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동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 제출장소 : 공동장소와 동일
○ 전력통신설비(가로등전선 공작)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460-1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일보

수사 내용 유출 대구경찰청 간부 2명 영장

내일 구속 심질심사 진행

경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감찰본부수사과는 22일 대구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 2월 지역 시중은행 등 대상으로 사용위생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다.

A경무관 등은 해당 사건의 수사 내용을 알아본 뒤 해당 업체에 전달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사건에 개입한 C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무마 시도 등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의경 등은 해당 사건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질심사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욱 기자 hanwook@kyongbuk.com

포항 확진자 1명 추가…총 80명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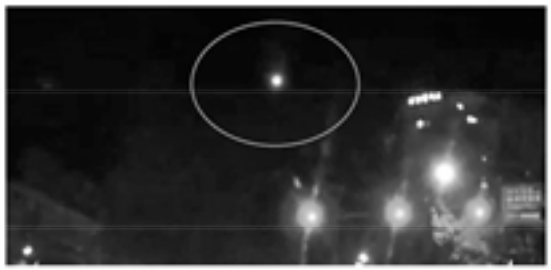
포항시는 2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80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확진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포항시 북구에 살거주 중인 30대 남성으로, 지난 21일 이뤄진 검체 검사 결과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층역학조사 및 추가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포항에는 이날 7명은 확진자에 이어 80번 확진자까지 총 2명 늘었다.

류혜진 기자 hrjou@kyongbuk.com



"달빛에 별동별 추경 물체 발자국" 22일 새벽 1시 경북의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인근에서 별동별로 추정되는 큰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과 지상 발자국으로 남겼다. 성서의 대구를 비롯한 세종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별동별을 본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제보됐다.

연안지고 위험해보 '주의보' 발령

포항해경경찰서는 동해안 풍랑주의보 예비특보에 따라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연안 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지고 위험해보에 '주의보' 단계를 발령 한다고 밝혔다.

연안지고 위험해보란 기상특보 또는 지진해일주의보 외에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호 포항해경 서장은 "풍랑주의보 및 나들성 파도 예보시에는 해상기상이 매우 나빠지고 해안 지역과 방파제에는 나들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방파제 및 갯바위의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 통제에 적극 협조 할 것을 당부했다.

손석호 기자 sohk@kyongbuk.com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부 12월 결정키로

다음 행정협의조정위 회의로 연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6개월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날 영풍전선부에서 2020년 제2차 분쟁위를 열고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도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8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석포제련소가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위원회에서 한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행정처분 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광역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정승혜 기자 yang@kyongbuk.com

술주정 이유로 가장에 저급 물욕 승자가 한 일가족에 장작불 구형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60대 가장의 입에 행주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재로자식과 증재모존속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하나(A씨·30)과 아들 김서강(20)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딸 C씨(30)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준수 기자 baejun@kyongbuk.com

취약계층에 독감 백신 무료접종

중대본 "인간 공급분으로 충당"
100만명 분량 추가 예산 확보

무료 접종에 사용될 독감 백신의 유통 중 문제가 발생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지원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며 "100만명분이 그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취약계층에 접종할 백신은 민간 공급분으로 충당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시간·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물량은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이에 민간에 공급돼 있던 백신 물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원분이 정확 대해서는 의료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구체적인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에 쓰일 백신 일부가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한 백신은 정부 입찰로 확보한 125만명분 가운데 지난 22일 접종을 위해 풀린 500만명분 중 일부 물량이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당연도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 시기를 예년보 이해 한 달여 앞당겼다"며 "지난 지역가 발생하지않도 자칭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는데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백신 배송체계에서 사후적인 품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 가시화에 유통 중인 제품을 살펴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코백스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백신 구매 비용 183억원을 확보했다.

류혜진 기자 hrjou@kyongbuk.com

대구서 제초작업 하던 60대 밭에 쓰여 사망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제초작업을 맡아던 60대 남성이 밭에 쓰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서구청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5분께 비산동 예전시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제초작업을 맡아다 밭에게 쓰였다.

동료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A씨를 살펴했을 때는 맥박이 멈추한 상태였다.

당시 동료직원들은 "A씨가 밭에 쓰였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밭에 쓰였다'고 말하면서 쓰러졌다"고 구급대에 설명했다.

A씨는 구급대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향했으나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 구급대원부터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인계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기준에 근로자로 서구청에 고용된 A씨는 서구지역 내 폐농약을 관리하고 일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농약이 폐쇄되어 농지정리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청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급여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밭 쓰임 사고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에도 밭 쓰임 관련 이송 177건 가운데 114건(64.4%)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고, 올해도 136건 중 91건(66.9%)이 같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원 기자 jeh8026@kyongbuk.com

대구도시공사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대구도시공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의 사업경영에 지혜와 경륜을 보태주실 분을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임용기간
○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비 상 임 감 사 : 1명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연임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임)
2. 응모자격
○ 공직 퇴직, 기타 법무관련에 관한 사항 준수 등
※ 자세한 자격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daegu.go.kr) 공고문 참조
3. 전형절차
○ 후보자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서류 및 면접심사) → 임원 후보자 추천 → 및 응시(대구광역시장)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주어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5. 응시접수
○ 접수기간 : 2020.09.25(금) ~ 2020.10.12(월)
(토요일제외 10.7일 - 접수준비 연휴)
○ 접수방법 : 방문(도, 공문접 제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장 소 : 우41059,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70(고성동) 3-1번지
대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 담당자(우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4일
대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은정-원남)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9.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은정-원남) 건설공사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소광리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장천리
○ 사업내용 : 연장22.3km 폭원8m(2차로) 시설개선
○ 사업기간 및 공사방식 : 사업시행자가 공사방식 결정
2.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20. 12. 30 – 2021. 12. 30(1년간)
○ 공사기간 : 실제 사업 후 기준예정
3.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0. 09. 23 – 2020. 10. 22(30일간,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울진군청 재무과(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000-1), 울진군 북면면사무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센터(www.impact.kr)
○ 공람방법 : 관계행정기관에 우편, 노선계획(안)
4.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 분	개최일시	구 분	개최일시
2020.09.24	2020.10.07	2020.09.29	2020.10.12
2020.09.25	2020.10.08	2020.09.30	2020.10.13
2020.09.28	2020.10.11	2020.10.01	2020.10.14
※ 상세일정은 추후 공람장소에 게시할 예정임
5.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그 처리 절차 사항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공람 연장일정에 기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한 서면 제출
○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준함
※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 및 공람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시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797-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친환경 여류급
꽃장석류농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한방, 석류 껍질의 놀라운 효능!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섭취 수 있는 증상들
석류의 영양성분
- 식물성 에스트로겐
- 비타민 B1, B2, C
- 탁이성질, 플라보놀
- 당질, 단백, 칼륨
- 나이아신
친환경 석류급은 왜 좋을까요? 석류에 껍질과 씨앗을 그대로 즙을 내리고 여성분들에 꼭 필요한 에스트로겐 성분이 기존에 석류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능이 좋아 있습니다
농원주의 명예를 걸고 친환경 재배로 작업 명인분니 안심하고 드십니오.
꽃장석류급 판매문의 011-810-0421 / 010-5573-0511
계좌번호 : 717029-52-109349 (농협 : 최근수)

○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게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게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주민의견수렴 결과

평가정보조회

사업번호	DG20200350			
사업명	국가지원지방도69호선(온정~원남) 건설공사			
사업 등록 유형	본사업			
업무담당자정보	협의기관	대구지방환경청	담당자	서제호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여부		부과여부	
홈페이지 공개여부	협의진행현황 목록	공개		
	협의의견 파일	공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해당			
주민의견 수렴여부	수렴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여부				
비고(특이사항)				

상세정보 | 검토서작성자정보 | 협의진행현황 | 초안공람 | 결정내용공개 | 주민의견수렴결과 | 원문정보

초안 공고일	20200923	초안공람기간	20200923 ~ 20201026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울진군 온정면사무소, 울진군 매화면사무소		
설명회장소	10월 14일: 울진군 매화면 소태1리(10시), 소태2리(13시), 소태3리(15시). 10월 15일: 선구2리(10시), 외선미1리(13시), 외선미2리(15시), 매화면 갈면리(13시), 갈곡리(15시) 각 마을회관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분산 참여 유도를 위해 각 마을별로 실시하며, 각 마을별 동일 설명회 반복 개최		
설명회일시	20201014~1015.(10시, 13시, 15시)	의견제출기간	20200923 ~ 20201102
부서명		전화번호	

2. 주민 등의 의견 및 조치계획(반영 여부)

<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반영여부)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 총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하였으며, 사업승인 시 이를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반영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 발생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음	
	◦협의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확정하여야 함.	◦반영 -협의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확정하겠음	
	□ 항목별 검토의견 [자연생태환경 분야] ◦사업구간 일원에 삵, 수달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므로 저소음·저진동 등의 공법을 실시, 야간공사 지양, 단계별 공사 진행 등 공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반영 -사업구간 일원에 삵, 수달 등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므로 공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등의 공법 실시, 야간공사 지양, 단계별 공사 진행 등을 시행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돼지풀 등 사업구간에서 발견되는 생태계 교란식물은 공사 중 제거하고 외부에서 추가로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영 -사업구간에서 발견되는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등)은 공사 중 제거하고 외부에서 추가로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음	
	◦보호수 및 노거수가 공사 차량 통행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연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 할 것	◦반영 -보호수 및 노거수가 공사 차량 통행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자연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계획하겠음	
	[대기환경 분야] ◦건설장비·차량 운행과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비산먼지, 질소산화물)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차량의 속도 제한, 차량 공회전 최소화, 방진벽(망) 설치, 분체야적물 덮개 설치, 차량 덮개 설치 등	◦반영 -건설장비·차량 운행과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비산먼지, 질소산화물)이 최소화되도록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차량의 속도 제한, 차량 공회전 최소화, 방진벽(망) 설치, 분체야적물 덮개 설치, 차량 덮개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공사장 내에는 주기적으로 살수하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계절에는 추가 살수·덮개를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해 분체야적 및 사면 모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반영 -공사장 내 주기적으로 살수하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계절에는 추가 살수·덮개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해 분체 야적 및 사면 모래가 흩날리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토지환경 분야] ◦공사장비 운영 중 유류 유출 등으로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공사장비 운영 중 유류 유출 등으로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겠음	
	◦절·성토작업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면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지형·지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구간에는 사면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지형·지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물환경 분야] ◦가능한 절·성토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반영 -가능한 절·성토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 등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인근 수계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생활환경 분야]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등은「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 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반영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등은「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 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주거지역 주변은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살수하고 방음벽 설치 시에는 대상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반영 -주거지역 주변은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살수하고 방음벽 설치 시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 기타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승인 후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 하여야 함(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반영 -본 사업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승인 후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울진군 환경위생과	□ 총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대책을 반영하고 주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도 고려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대책을 반영하고 주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도 고려하여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울진군 환경위생과	◦인근 주민의 불편 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여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반영 -인근 주민의 불편 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여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인파악을 하고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반영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인파악을 하고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검토의견 1. 총괄 ◦본 과업은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매화면 갈면리 구간의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기존도로 개량으로 교통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승인기관에서는 본 협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감안하여 저감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여야함.	◦반영 -본 협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본 협의내용 및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감안하여 저감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겠음	
	2. 세부 협의내용 1)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문헌조사 시 사업지구 주변에서 수달, 삵,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 법정보호종이 조사된 바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협요인파악 및 적정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문헌조사 시 사업지구 주변에서 수달, 삵,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등 법정보호종이 조사되었으므로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협요인파악 및 적정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울진군 환경위생과	◦훼손 수목의 이식환경, 굴취조건,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획지구 내 살수차량 이용 주기적 살수, 운행속도 제한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반영 -훼손 수목의 이식환경, 굴취조건,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목이식 계획을 수립하겠음. 또한, 계획지구 내 살수차량을 이용한 주기적 살수, 운행속도 제한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저감방안을 수립함	
	◦계획노선 주변지역으로 소나무군락, 및 보호수 및 노거수 등이 위치하므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본사업으로 인한 훼손수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노선 선정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제출 시 구체적인 저감계획 제시)	◦반영 -계획노선 주변지역으로 소나무군락, 및 보호수 및 노거수 등이 위치하므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훼손수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적의 노선을 선정함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문헌조사 시 본 계획노선은 금장지맥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협요인 파악 및 적정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문헌조사 시 본 계획노선은 금장지맥을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협요인 파악 및 적정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다.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주변에 소태1,2,3리 마을, 선구2리 마을 등이 있으므로 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공사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 주변에 소태1,2,3리 마을, 선구2리 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공사장비 및 토사이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기준 초과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반영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기준 초과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본 계획노선 구간의 깎기, 쌓기에 대한 경관변화에 대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 구간의 깎기, 쌓기에 대한 경관변화에 대하여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울진군 환경위생과	라. 수환경의 보전 ◦본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곳에 온정천 등 4개 하천이 인접하여 있는바,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으로 하류수계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 -본 계획노선 통과구간에 온정천 등 4개 하천이 인접하여 있는바,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 발생 시 하류수계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예상되므로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터널설치로 인한 주변 지하수위 영향과 터널폐수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선선정 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비교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반영 -터널설치로 인한 주변 지하수위 영향과 터널폐수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영향이 예상되므로 노선선정 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2)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대기질 ◦본 계획지구의 대기질 현황측정 결과 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대기질이 조사되었으나, 건축물 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시 공사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터널 및 교량 설치, 절·성토 작업시 등 토공사 시 공사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나. 소음·진동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 기준 초과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함.	◦반영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 기준 초과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다. 토양 ◦지장물 철거, 투입장비 및 인부, 미확인 토양오염원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도로건설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요소를 관리하여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반영 -지장물 철거, 투입장비 및 인부, 미확인 토양오염원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도로건설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요소를 관리하여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라. 온실가스 ◦공사 시 투입되는 건설장비 사용, 토양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반영 -공사 시 투입되는 건설장비 사용, 토양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울진군 환경위생과	마. 폐기물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법한 처리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함.	◦반영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법한 처리 절차를 수립·시행하겠음	
	3)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반영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	
대구지방 환경청	Ⅰ. 총괄의견 ◦본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일원의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시설개량을 위한 것으로 하천 및 생태자연도 1등급 등 자연생태우수지역 통과 구간은 아래의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노선 추가 및 재검토가 필요함.	◦반영 -하천 및 생태자연도 1등급 등 자연생태우수지역 통과 구간은 항목별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노선 추가 및 재검토하여 제시함	
	-하천(온정천, 매화천)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입지역, 절토고(20m 이상) 및 성토고(10m 이상) 발생지역 등 주요 훼손 구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도면과 표로 정리하여 제시	◦반영 -하천(온정천, 매화천)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입지역, 절토고(20m 이상) 및 성토고(10m 이상) 발생지역 등 주요 훼손 구간에 대한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	
	-하천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통과지역은 최대한 터널을 계획하여 식생 및 경관 훼손, 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	◦반영 -하천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통과지역은 최대한 터널을 계획하여 식생 및 경관 훼손, 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계획노선 대안별(예타안, 비교 1, 2안) 및 구간별 장점을 고려한 최적노선 선정 필요	◦반영 -계획노선 대안별(예타안, 비교 1, 2안) 및 구간별 장점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선정함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른 계획노선 조정 등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제시	◦반영 -검토의견에 따른 계획노선 조정 등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은 자연환경 우수지역(생태자연도 1~2등급, 자연하천 지역 통과 등)으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 또한 향후 보호종 서식지역 확장 또는 서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ㆍ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회피 구간 및 대안을 선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 및 주변은 자연환경 우수지역(생태자연도 1~2등급, 자연하천 지역 통과 등)으로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확인 및 서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계절별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노선으로 영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 선정 및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겠음	
	◦계획노선 대안의 선정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의 정도, 훼손되는 수목의 양, 절·성토 발생의 정도 등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다양하게 비교·분석하여 최적 노선을 결정하여야 함.	◦부분반영 -계획노선 대안의 선정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의 정도, 훼손되는 수목의 양, 절·성토 발생의 정도 등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다양하게 비교·분석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함	
	-1공구 온정천교~남대천1교(STA.1+500~STA.3+500) 구간은 도로 신설로 온정천 자연하천 생태 및 경관의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기존 88번 국도 활용 또는 장대터널 설치	◦부분반영 -기존 국도88호선 활용 구간의 경우 우회거리 및 소요시간 증가, 기존 지방도69호선 활용구간의 산림훼손 증가, 주민요구 등에 따라 신설구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온정천교~남대천1교 구간은 터널 2개소로 계획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겠음	
	-1공구 온정터널(6+000~8+500) 구간은 비교 1·2안간 훼손 폭, 면적을 제시하되, 훼손 면적이 적은안 검토	◦반영 -온정터널(STA.6+000~8+500) 구간은 비교 1·2안간 훼손 폭, 면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훼손 면적이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함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2공구 길곡1교~길곡6교(STA.8+500~STA.9+500) 구간은 다수의 구간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매화천 하천생태를 훼손하고, 대규모 절·성토사면 발생(26쪽)이 예상되므로 관련 현황을 구체적 제시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대터널 설치	◦미반영 -본 구간을 터널로 계획할 경우 터널 갱구부 공사에 따른 식생훼손이 계획안(비교1안)에 비해 크고, 터널 종점부와 교차로(외길마교차로)와의 이격거리가 도로시설기준(300m)에 미달하여 교차로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계획안(비교1안)으로 계획하였으며,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2공구 매화천1교~매화천2교(STA.11+500~STA.12+000) 구간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매화천 훼손 면적이 크므로 남측 기존도로를 활용하거나 비교 2안과 같이 매화천과 이격하면서 농경지 활용방안 검토	◦반영 -본 매화천1교~매화천2교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매화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남측 기존 도로 활용 및 비교2안과 같이 매화천과 이격하면서 농경지를 활용하는 노선으로 계획함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노선은 생태자연도 1등급의 산지와 하천경관이 우수한 하천을 양분하고 있어 물리적 단절이 예상되므로 수달 등 육수생물상에 대한 정밀조사 및 이동성 확보방안이 필요함.	◦반영 -계획노선 구간 중 산지와 하천을 양분하여 물리적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계절별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수달 등 육수생물상의 서식지 단절 및 이동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겠음	
	◦계획노선으로 선정한 비교1안은 대절토 및 고성토 비탈면 발생은 적으나, 비탈면 폭이 길어(지형변화지수가 약 7로 다른 비교 노선중 가장 큼) 생태적 연결성 단절 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요 절·성토 구간에 대한 종단 및 평면 선형 조정, 절·성토계획 조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비교1안) 설계 시 주요 절·성토 구간에 대한 종단 및 평면 선형 조정을 검토하여 노선 선정 시 반영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절·성토계획 조정 등을 검토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	
	◦감입곡류하천 등 지형자원에 대한 현황 및 저감방안 제시가 부족하므로 각 노선안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지형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각 노선안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지형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2공구 길곡1~6교, 매화천2~3교는 사업비 위주로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 지형 및 경관 훼손에 대한 타당한 저감방안 미제시	◦반영 -길곡1~6교, 매화천2~3교에 대한 지형 및 경관 훼손에 대해 대안별로 검토하여 제시하고, 지형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음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에는 울진 소태리 각석문, 성황목, 울진 선구리 성황당 등 다수의 향토·역사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형경관1등급지와 함께 향토·역사자원에 대한 현황을 도면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 주변으로 울진 소태리 각석문, 성황목, 울진 선구리 성황당 등 다수의 향토·역사 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분포현황을 도면에 명시하여 제시하겠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음	
	4) 수환경의 보전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 기양저수지 유입 등 수생태계상 중요한 지역이므로 수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을 충실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 주변은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 기양저수지 유입 등 수생태계상 중요한 지역이므로 수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겠음	
	◦계획노선 인접 온정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이격거리 취수 및 공급 등),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반영 -계획노선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온정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이격거리 취수 및 공급 등)을 제시하겠으며,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하천횡단(교량 14 또는 15개소) 및 연접 구간은 하천 수면부 교각 설치를 지양하여야 하며, 하천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하천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반영 -하천횡단 및 연접 구간은 하천 수면부 교각 설치를 지양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하천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겠음	
	◦1공구의 경우 대규모 장대터널(3개소, 2,040m) 굴착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수계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영향(수위 강하 등)을 고려하여 대안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반영 -터널 굴착 공사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수계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영향(수위 강하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 및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획하여 수질 및 지하수 등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터널 상부와 인근의 지하수 및 지표수계 현황을 조사하여 지하수 영향 중점 파악 구간(민감 시설) 설정, 입지의 타당성(대안) 검토 시 이를 반영	◦반영 -터널 상부와 인근의 지하수 및 지표수계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지하수 영향 중점 파악구간(민감 시설) 설정, 입지의 타당성(대안) 검토 시 제시하겠음	
	-하천 및 습지, 자분정(약수터), 휴·폐광산의 갱도 등의 분포 조사	◦반영 -하천 및 습지, 자분정(약수터), 휴·폐광산의 갱도 등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현황(위치, 용도, 제원, 채수량, 수위 등) 조사	◦반영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현황(위치, 용도, 제원, 채수량, 수위 등)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상기 수계 및 지하수 시설 현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대안 분석에 활용	◦반영 -수계 및 지하수 시설 현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 대안 분석에 활용하겠음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가) 대기질 ◦금회 평가서(초안)의 3개의 대안 노선 내 연장 약 1㎞ 이상의 온정터널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터널 입·출구 주변 주요 영향 예상 대상시설 현황,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확인하고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반영 -온정터널 입·출구 주변 정온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터널 입·출구부로 부터 500m 이내 위치한 정온시설이 없어(최소 이격거리 805m) 차량통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추후 실시 설계단계에서 운영시 터널 환기 등의 저감방안을 검토 할 계획임	
소태1리	<울진군 건설과> ◦기존 국지도69호선은 국도88호선 접속부에서 남측방향 일부구간이(약 L=300m) 개선되지 않아 금번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요구	◦미반영 -관련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본 사업 포함 곤란	
	<주민> ◦시점부 회전교차로 진입전은 급경사지로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속, 결빙 등에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반영 -조명 및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소태1리	◦국지도69호선의 남측(영덕방향)구간은 선형 및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위험하므로 금번사업에 포함하여 개선 필요	◦미반영 -관련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본 사업 포함 곤란	
소태2리	◦국지도69호선 영덕방향은 도로가 불량하여 이번사업에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함		
선구2리	◦마을에서 면사무소 이동시 국도88호선 이용은 우회거리 및 이동시간 증가 등 불편하므로 현 설계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	◦반영 -기존 국도88호선 활용 구간의 경우 우회거리 및 소요시간 증가, 기존 지방도69호선 활용구간의 산림훼손 증가, 주민요구 등에 따라 현 설계안으로 계획함	
	◦작년 홍수시 피해가 발생한 남대천에 설치된 농로교량(문곡교) 보수필요	◦미반영 -관련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본 사업 포함 곤란	
외선미1리	◦마을에서 면사무소 이동시 국도88호선 이용이 불편하므로 현 설계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	◦반영 -기존 국도88호선 활용 구간의 경우 우회거리 및 소요시간 증가, 기존 지방도69호선 활용구간의 산림훼손 증가, 주민요구 등에 따라 현 설계안으로 계획함	
	◦외선미를 통과하는 터널은 지역명으로 변경 요구(온정터널→외선미터널)	◦미반영 -실시설계 시 검토하겠음	
길곡리	◦기존 마을과 최대한 이격한 계획으로 시행 요망 -하천 및 산지부 방향으로 계획 요망 -특히, 사달・광대골・죽전마을은 기존 마을과 이격하여 매화천 제방 방향으로 계획 요구	◦부분반영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림 및 농경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 시 반영토록 할 계획임	
갈면리	<울진군 건설과> ◦과업 종점과 기존 도로(2차로) 사이에 1차로 구간(L=250m)이 남아있어 과업 종점을 연장하여 사업 수행 필요	◦미반영 -관련 지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본 사업 포함 곤란	
	◦버스승강장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변 차로 설치 필요	◦반영 -추후 실시설계 시 반영할 계획임	
	◦길곡천(소하천) 저촉에 따른 소하천 변경 계획시 도로의 편측으로 설치 요구	◦반영 -소하천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의 편측으로 노선을 계획함	
	<주민> ◦도로 계획시 편입 용지 중 자투리 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반영 -추후 실시설계 시 반영할 계획임	